

## 몽브리알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장

프랑스의 대표적인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IFRI(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의 티에리 드 몽브리알(Montbrial) 소장은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상호의존이 심해지면서 국제체제의 안정을 위해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세계 경제 현안을 다루는 상설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몽브리알 소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조선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라며 "현재 세계 경제에서 또 다른 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G20이다"라고 강조했다.



▲ 티에리 드 몽브리알 IFRI(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의 위기관리 및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G20을 상설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파리=강경희 기자 khkang@chosun.com  
몽브리알 소장은 프랑스 최고의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이공계 그랑제콜인 에콜 폴리테크니크와 에콜 데 민을 졸업하고 미국 UC 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에콜 폴리테크니크 교수, 프랑스 외무부 정책기획국장 등을 지낸 뒤 1979년 IFRI를 설립, 프랑스의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로 키워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정상회의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G20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전에는 재무장관 차원 모임으로 열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에는 어떠한 리더십도 없었다. 이때 시작된 G20 정상회의는 신뢰 회복이라는 심리적 영향을 주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다루기 위해 모인 G20 정상회의가 앞으로도 계속 세계 경제의 주요 의사 결정 기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크게 효율성(efficiency)과 정통성(legitimacy)이라는 두 관점에서 봐야 한다. G20은 세계 GDP(국내 총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들로 구성돼 있지만 너무 강하기도, 동시에 너무 약하기도 하다. 정상회의로는 너무 큰 모임인 반면,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무국도 없을 정도로 약하다. 효율성 잣대로 보면 20개국은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많다. 정통성 잣대로 보면 20개국은 너무 적다. 따라서 G20은 조직이라는 관점에서 역할을 보다 명백히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실질적인 '도전'도 G20을 조직으로 상설화하는 것이다."

-장차 G20이 G8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나.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G20은 본질적으로 경제 그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G8은 1975년 프랑스 주도로 경제그룹 G5(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로 출발해 점차 정치 그룹으로 발전해 갔다. 곧 이탈리아, 캐나다가 가세해 G7 체제로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참여로 G8이 됐다. 그 결과 정치와 경제 이슈를 다 다룬다. G20도 이렇게 발전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G20의 목적이 매우 혼돈스럽고 글로벌 지배구조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바람직한 '글로벌 지배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글로벌 지배구조에는 두 개의 새로운 G(그룹)가 필요하다. 경제 그룹으로는 G20이, 정치 그룹으로는 새롭게 구성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각각 세계 안보와 경제 이슈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G8은 유럽 국가가 4개나 되고, 아시아는 하나밖에 없는 등 문제가 많다. 만약 G20이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보다 개선된 형태를 띠고 새로운 안전보장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면 G8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본다."

-상설화된 G20이 세계 경제에서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인가.

"위기관리 및 위기 재발 방지다. (금융회사들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강화한)'바젤3'이라고 불리는 새 금융규제 방안이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계 금융시스템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것 역시 중요한 G20의 과제가 될 것이다."